

곡성 ‘토란타르트’ 프리미엄 디저트로 화려한 변신

롯데백화점 진출·道 최우수 쾌거
미스터공기, 9-15일 광주점서 팝업
‘로컬픽’ 평가 상위 5개 팀에 선정
농촌 비즈니스 입증…상생 주력

곡성 토란이 청년 창업가의 특목 튀는 아이디어를 만나 ‘프리미엄 디저트’로 화려하게 변신하며, 전남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광주지역 대형 백화점 팝업스토어 진출까지 확정 지으며 지역 상품 판로 확대에 나서고 있다.

1일 곡성군에 따르면 관내 청년 기업이자 곡성토란도란농촌융복합사업단 지정 디저트 전문점인 ‘미스터공기’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미스터공기는 2020년 귀촌한 김빛나 대표가 론칭한 로컬 디저트 브랜드다. 김 대표는 특유의 아린 맛과 반찬용 식재료라는 인식 때문에 소비층이 한정적이었던 토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타르트를 접목했다.

곡성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기술 지원과 ‘청년농업인 사업화 지원’을 통해 탄생한 ‘토란타르트’는 맛과 재미를 동시에 잡으며 로컬 디저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대표 메뉴인 토란타르트 외에도 신제품 ‘토란쌀쿠키’ 등을 선보이며 도시 소비자들의 입맛을 공략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품 경쟁력은 대외적인 성과로도 증명됐다. 미스터공기는 최근 전남도가 주관한 ‘제2기 전남 로컬픽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전남 로컬픽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우수 청년



지난해 11월 곡성 소재 미실란 카페에서 열린 ‘2025년 지역자원 연계 청년창업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에서 미스터공기가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창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미스터공기는 도내 34개 참여 기업 중 지역 특색을 살린 상품성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아 상위 5개 업체에 선정돼 5천만원의 사업 고도화 자금을 지원금을 받

았다.

김 대표는 “농촌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로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며 “이번 팝업스토어와 수상을 발판 삼아 곡성 토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청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백화점 진출과 도 단위 평가 최우수라는 결실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창업 지원과 판로 개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매년 예비 청년 창업가 3명을 선정해 2천만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있다. /곡성=김영필 기자

해남 백련재 문학의 집, 신규 입주작가 모집

오는 13일까지 접수 9명 선발

고즈넉한 한옥에서 창작의 열정을 불태울 문인들을 위한 기회가 마련됐다.

1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 직영 문학 레지던시인 ‘백련재 문학의 집’이 2026년 상반기 입주작가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시(시조), 소설, 수필, 평론, 번역, 희곡 등 문학 전반이다.

등단한 기성작가는 물론, 작품 계획서와 지도교수 등의 추천서를 갖춘 예비 작가도 지원할 수 있다.

선발 인원은 총 9명이며, 집필실 이용 기간에 따라 6개월간 머무는 ‘집중 지원’과 3개월간 이용하는 ‘일반 지원’으로 나뉜다. 입주는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1-13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고산 윤선도 유적지 인근에 위치한 백련재 문학의 집은 총 8실의 전용 집필실과 공용 공간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황지우, 최두석 등 저명한 문인들이 거쳐 갔으며, 최근 강준 소설가의 ‘말은 욕망하지 않는다’, 이월춘 시인의 ‘바람 냄새 나는 사람’ 등 입주 작가들의 출간 성과가 잇따르며 한국 문학의 산실로 자리 잡았다.

해남군 관계자는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오롯이 집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며 역량 있는 작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강진군, 지역상품권 최대 12% 할인

지류 제외 모바일 한정…소진시 종료

강진군이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2%로 대폭 상향한다.

1일 강진군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부의 국·도비 지원 확보로 이일부터 지역화폐 할인 혜택을 확대 운영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비 7%, 도비 2%에 군비 3%를 매칭해 총 12%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소비자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 10%를 먼저 할인받고, 결제 시 2%를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다만, 지류(종이)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향혜택은 ‘모바일(작) 상품권’에 한해 적용된다.

추가되는 2% 캐시백 혜택은 도비 예산 2억4천800만원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앞서 강진군은 지난 7년간 강진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연중 10%로 고수하며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강진군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실질적인 혜택을 늘렸다”며 “가계 소비 부담은 줄이고 소상공인 매출은 증대시키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여수시도시관리공단 ‘新 경영비전’ 선포

안전·디지털·ESG·소통·혁신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시민 행복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새로운 경영 비전을 선포했다.

1일 여수시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송병구 이사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新 경영비전 선포식’을 갖고 향후 5년간 나아갈 혁신 로드맵을 공개했다.

〈사진〉 이번 비전은 정부 국정 과제와 여수시 시정 목표, 이사장의 경영 철학을 집대성해 수립됐다.

공단은 ▲안전 ▲디지털 ▲ESG ▲소통 ▲혁신을 5대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향상과 경영 체질 개선에 나선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해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공단은 이번 비전을 주요 사업 계획에 반영해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송병구 이사장은 “공단의 진정한 변화는 시민 눈높이에 맞춘 혁신과 책임 있는 운영에서 시작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영광 숙원 사업 ‘성산근린공원’ 38년만 본궤도

‘역사와 개발 공존’ 모델 도출

18홀 파크골프장·산책로 조성

영광 주민들의 38년 숙원 사업인 ‘성산근린공원’ 조성 공사가 마침내 본궤도에 오르며 문화와 휴식, 체육이 어우러진 도심 속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1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영광읍 성산 일원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4km 구간의 숲속 산책로를 갖춘 성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착공했다.

〈조감도〉

성산근린공원은 영광읍 영광중앙초등학교 뒤편에 위치해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며, 영광군 전체 인구(약 5만3천명)의 43%가 거주한다.

주민들은 그동안 생활권 내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녹지 공간 확충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사업 부지인 성산 일대는 토성과 통일신라 말기 유구가 다수 확인된 역사적 요충지



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정밀 발굴조사가 필수적인 탓에 군은 2022년-2024년 문화재청 등과 협의해 정밀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6월 모든 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문화유산의 보존 가치를 살리면서도 주민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역사와 개발의 공존’ 모델을 도출해냈다.

이번 작공은 이러한 주민들의 오랜 갈증을 해소할 실질적인 해답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원의 핵심 시설은 ‘정원형 파크골프장(18홀)’으로 이미 군은 지난해 초 공원 내에 초보자를 위한 파크골프 연습홀 2개(장미홀·동백홀)를 시범 개장해 주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조성되는 4km 길이의 숲속 산책로는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경사도와 동선을 최적화해 파크골프 이용객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나들이객, 가벼운 운동을 즐기는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진다.

영광군 관계자는 “성산근린공원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영광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사랑을 잇는 도심 속 거점 공원이 될 것”이라며 “오래 기간 기다려온 군민들에게 최고의 휴식처를 선사할 수 있도록 명품 공원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동규 기자



영암군은 최근 덕진면에서 우승희 군수와 면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보 유리온실 정원 조성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영암군 제공>

영암 영보 유리온실, ‘치유의 정원’ 재탄생

郡, 33억원 투입 내년 상반기 개방

죽목장 등 실내·외 문화공간 조성

영암군의 방치됐던 낡은 유리온실이 군민과 관광객을 위한 쉼과 치유의 정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1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덕진면에서 우승희 군수와 면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보 유리온실 정원 조성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구 농협중앙센터 영암육묘장 유

리온실과 주변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 정원형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다.

민선 8기 영암군은 오랫동안 방치된 시설을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키우기 위해 총사업비 33억원을 투입, 해당 공간을 실내 정원 및 야외 정원으로 나눠 조성한다.

실내 정원은 내년 5월까지 28억원을 들여 약 2천200㎡ 규모로 꾸며진다. 내부에는 맞이 공간을 비롯해 휴게 공간인 ‘쉼터’, 전시 공간 ‘초록뜰’, 체험 학습장 ‘초록교실’, 어린이 도서관 ‘책폴방’, 족욕장, 산책로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실외 정원은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5억원을 투입해 운동장 부지와 유휴 부지에 작은달빛정원, 큰달빛정원, 잔디마당, 화계원 등을 조성하며, 실내와 실외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사계절 내내 이용가능한 전천후 정원으로 만들 방침이다.

앞서 군은 2023년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지난해 산림청 생활밀착형 숲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를 확보하며 사업 동력을 얻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방치된 자원을 생태적인 정원으로 바꾼 군민에게는 쉼, 관광객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진행해 전국적인 정원 명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담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만 50세 이상·1년 이상 거주민 대상

담양군은 1일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고가의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이달부터 예방약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대상자는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주민이다.

단,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군비 지원을 받아 이미 생백신을 접종한 군민은 제외된다.

접종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전입 일자 포함)을 지참해 보건기관을 방문하면 의사 예진 후 접종받을 수 있다. 대상포진을 앓은 이력이 있다면 회복 후 6-12개월이 지난 뒤 접종해야 한다.

접종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가능하다. 생

백신(회)은 본인 부담금 2만원만 내면 맞을 수 있다. 새로 도입된 사백신(회)은 회당 13만5천원의 비용 중 군에서 4만원을 지원하며, 주민은 차액만 지불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22가 다당질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대상자에게 폐렴구균 무료 접종도 실시한다.

남우주 보건소장은 “대상포진은 발병 시 극심한 통증과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이 필수적”이라며 “군민의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의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